

KT, 차기 대표이사 인선 진통... 임원인사·신규사업 '삐걱'

국민연금, 구 대표 연임반대 기조
3월 주총 결론... 차기대표 안갯속
일각선 새정부 의견 작용 분석도

국민연금이 3월로 예정된 KT 주주총회에서 구현모 현 KT 대표에 대한 연임 반대에 나설 계획이어서 KT 차기 대표 인선이 미궁 속에 빠졌다. KT 임원인사는 계속 지연될 경우 신규 사업 추진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말에 임원인사는 물론 조직개편까지 마쳤다.

◆구 대표 연임 반대 정부 의견 작용했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KT 대표 연임에 반대는 주주총회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표대결에서 구 대표가 승리한다고 해도 연임 과정은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이 구 대표의 연임 반대를 공식적으로 나선 것은 현 정부의 의견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구 대표는 국민연금이 문제를 제기한 소유분산기업에서 CEO가 거듭 연임하는 '황제 연임'을 의식했다. 이에 따라 KT 대표이사 후보심사위원회에서 구 대표에 대해 '연임 적격'이라는 결정을



서울 광화문 KT 사옥

/뉴스시스

내렸음에도 자발적으로 경선을 제안해 경선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경선에 나온 후보자와 경선 진행 절차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경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구 대표에 연임에 대해 '황제연임', '셀프연임'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서원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CIO)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KT 이사회는 현직 최고경영자를 대표이사 최종후보로 확정해 발표했는데, 이는 'CEO 후보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해 12

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KT를 겨냥하며 "소유분산기업이 대표이사나 회장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현직자 우선 심사와 같은 내부인 차별과 외부 인사 허용 문제를 두고 쟁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KT 내부인사 출신인 구 대표 외에 외부인사를 후보로 올려 경쟁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최근 외부인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연금은 "KT 이사회는 복수 후보에 대한 심사 절차나 과정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절차를 거쳤고, 후보군에 대한 이름도 비공개 하는 등 일방적인 CEO 선임을 진행했다"고 문제를 삼았다. 서원주 CIO는 "내외부에서 최적임을 찾을 수 있

게 추천, 공모 등에 제한 없이 CEO 후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이같은 KT CEO 경선 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안 수석위원은 "구 대표 단독 후보 선임 결과는 절차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주는 사례가 된 것"이라며 "구 대표 연임을 위해 들러리 후보자 몇 명을 짧은 시간 내 얼렁뚱땅 심사해 기록만 남겨두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국민연금 반대표 표 대결 영향 미치나

KT 지분율 구성은 국민연금 10.35%, 현대자동차그룹 7.79%(현대차 4.69%·현대모비스 3.1%), 신한은행 5.58% 등으로 돼 있다. 또 57.4%는 소액주주가 갖고 있다. 최대주주의 반대 의사는 주주총회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신한은행은 KT와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한 주요 파트너로 KT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져도 구 대표가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호세력이 정부의 의지, 여론 등을 의식해 태세 전환에 나설 수 있다. KT 대표 결정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더 신중한 자세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지

금까지 KT 대표는 민영화되기는 했지만 공기기업에서 출발했으며, 구 대표 이전까지 친정부 인사들이 대표에 선임돼 왔다. 하지만 현 KT 이사회에는 친노·친문 인사가 많이 포진돼, 현 정권과 배치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구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 대표는 지난해 11월 2016년 국회의원 13명에게 '쪼개기 후원'으로 회삿돈 14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으며,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3월 박종욱 KT 각자대표도 '쪼개기 후원'에 나선 것 때문에 사내이사 재선임 투표에서 자진 사퇴했다. 국민연금이 '국회의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반대 이유로 제시한 것이 원인이 됐다. 구 대표도 박 사장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SK그룹 인사에도 관여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했지만, 결국 최 회장은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난 2019년 대한항공 대표이사를 지내던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물러나게 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경기침체에도 국내완성차업계 판매량 '쑥쑥'... 성장세 지속

내수보다 수출 증가... 판매량 견인
현대차 395만대 등 전년 대비 호실적

국내 완성차 업계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판매량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내수 시장보다 수출 물량이 증가하며 전체 판매량을 이끌었다.

3월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약 395만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1.4% 상승했다. 국내는 68,884대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한 반면 해외는 325만5695대로 2.9% 증가했다. 현대차는 올해 ▲시장 변화 탄력 대응 ▲전동화 전환 가속화 ▲권역별 생산·물류·판매(SCM) 최적화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등을 키워드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는 올해 국내

78만1000대, 해외 354만대 등 총 432만 1000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다.

기아는 지난해 290만 3619대 판매하며 내수·수출 모두 증가했다. 국내는 54만 1068대, 해외는 236만 2551대로 2021년 대비 4.6%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해 국내는 1.1% 증가, 해외는 5.4% 증가한 수치다. 차종별 실적은 스포티지가 45만 2068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셀토스가 31만 418대, 쏘렌토가 22만 2570대로 뒤를 이었다.

기아는 올해 글로벌 시장 판매목표를 320만대로 잡고 다시 한번 도약에 나선다. 기아는 올해 국내 58만3000대, 해외 260만4200대, 특수사업에서 1만2800대를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11만3960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국내 판매량은 6만8666대로 전년 대비 21.8% 늘었다. 해외 판매도 62.2% 늘어난 4만4994대를 기록했다. 신차 토레스가 인기를 끌면서 판매 실적을 견인했다. 지난해 7월 출시한 토레스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2만2484대로 집계됐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지난해 총 16만 9641대를 판매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한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 판매는 5만2621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9% 감소했지만, 수출에서는 11만 7020대를 기록하며 63.3% 증가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지난 1년 간 QM6가 2만7440대로 가장 많이 팔렸으며 수출은 XM3(수출명 르노 아르카나)가 하

이브리드 모델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8% 성장한 9만9166대를 기록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내수 3만7237대, 수출 22만7638대로 총 26만4875대(완성차 기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지난해 판매를 이끈 해외 판매는 전년 대비 24.6% 증가한 22만7638대를 기록했지만 내수는 31.4% 감소한 3만7237대를 기록했다. 웨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지난해 내수 1만4561대, 수출 15만5376대 등 총 16만9937대가 팔려 2022년 웨보레 브랜드 베스트셀링카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지엠은 올해 웨보레 브랜드와 또 하나의 글로벌 GMC 브랜드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LGU+ 오픈랜 분산장치-안테나 연동

오픈랜 토털 솔루션 확보

LG유플러스는 글로벌 통신장비 제조사 삼지전자와 협력해 오픈랜 국제 표준 규격에 기반한 O-DU(분산장치)와 O-RU(안테나) 장비를 연동하는데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O-DU와 O-RU는 5G 오픈랜을 구성하는 오픈랜 글로벌 표준 기반 기지국 장비다. 이번 장비 연동 성공으로 LG유플러스는 글로벌 제조사 및 국내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오픈랜 토털 솔루션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LG유플러스와 노키아는 5G 어드밴스드(Advanced) 및 6G 분야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6G 시대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오픈랜 관련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상생 차원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오픈랜 기술력 확보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삼지전자에 O-RU 개발비용을 투자하는 등 3년간 협력을 진행키로 했다.

이번 연동 시연을 위해 LG유플러스는 서울 강서구마곡사옥에 노키아의 O-DU 장비와 삼지전자의 O-RU 장비로 시험망을 구성했다. 노키아 글로벌 연구소가 양사의 장비를 연동하기 위한 개발작업을 진행해왔으며, 3사 관계자들이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해왔다.

양사는 이번 시연을 통해 O-RAN 얼라이언스(Alliance)가 제정한 표준에 기반한 노키아 O-DU와 삼지전자의 O-RU 장비가 상용 코어장비와도 연동되는 것을 확인했다.

/채윤정 기자

롯데케미칼, 'CCU·바나듐이온 배터리 ESS' 등 혁신기술 소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CES 2023

서울관 참여... 스타트업 8개사 협력

롯데케미칼이 5일부터 8일까지(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인 'CES 2023'에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기술과 미래 배터리 소재인 VIB ESS(바나듐이온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 친환경 스페셜티 소재 기술을 선보인다.

롯데케미칼은 서울시와 서울산업진

흥원(SBA)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관에 참여해 첨단 기술을 보유한 유망한 스타트업 8개사와 함께 미래 기술을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소개한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이 소개하는 CCU 기술은 국내화학업계 최초로 기체분리막을 활용한 신기술 실증 설비로서, 배출권 구매 비용 절감과 기술 확보 통한 사업 진출, 글로벌 탄소중립 대응 통한 ESG 경영을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는 VIB(바나듐이온 배터리) ESS(에너지저장시스템)

는 물 기반 전해액을 사용해 발화 위험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배터리로, 산업용·가정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바나듐이온 배터리제조업체인 '스탠다드에너지' 지분 약 15%(약 650억원 투자)를 확보한 2대 주주로서 다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2022년은 회사의 새로운 미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다



CES 2023 서울관 롯데케미칼 전시존

/롯데케미칼

지는 한 해였다"며 "2023년은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구조의 근본적 재편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